

# 6월 돈가는 2,700~2,800원/kg으로 전망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 1. 5월 전망 돈가와 5월 돈가

**전**망 돈가는 2,400~2,500원/kg 이었으나, 5월 돈가는 3,000/kg 선에서 유지되었다.

전망 돈가와 실제 돈가와와의 차이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된 돼지 마리수가 약 70만두로 국내 총 사육두수의 약 9%에 달해 출하두수가 9% 부족했다는 것이 그 주요인이었다. 또한 3월 27일 정부의 구제역 발표 이후 감소된 육류 소비가 5월 연휴를 맞이하여 전년 수준까지 상승한 것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겠다.

가공업체 입장으로는 정부의 등, 안심 수매 발표와 전지 가격 상승, 수출 중단된 후지 재고가 점진적으로 소진되어 가공 두수가 다소 증가한 것도 돈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지만 문제는 돈가 3,000원/kg 수준에서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 2. 6월 돈가 전망

5월 들어 돼지 사육 산지인 충남 홍성의 경계지역 이동 제한 조치 해제와 보호지역의 규제 조치 완화로 다소 출하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용인지역도 경계지역에서 해제되어 출하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6월 돈가는 5월보다 다소 낮은 2,700~2,800원/kg으로 전망한다.

## 3. 돈가와 육가공 업체

1차 산물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현 상황 즉,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어 당장에는 육가공 업체에 도움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 고돈가가 육가공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부위별 판가와 부산물 가격을 고려

**정부에 의존하는 양돈보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향후 예상되는  
돈가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이 간절히 요구된다.**

할 때 2,500원/kg 이 적정 돈가라 판단하는 육가공 업체가 대다수이어서 돈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4. 정부의 중장기 정책 수정 필요성 대두**

국내 양돈 및 육가공에 대한 정부의 중, 장기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 1)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돈육 수출 중단이 돼지 부위별 판매 가격을 변화시키고
- 2) 저평가 부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것
- 3) 과거와 같은 돈육 그 자체 수출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가열처리된 육가공품이 6개월 이내 수출이 어렵다는 것
- 4) 가공업체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고
- 5) 최종적으로 양돈 농가의 구조 또한 변화 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 장기 정책 수립하여 안정된 국내 양돈과 육가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충실**

중장기 정책 수립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확한 통계 자료라 판단된다.

- 첫째, 정확한 사육 두수와 사육 농가의 집계
  - 둘째, 국내 도축 두수, 부위별 생산량, 재고량 파악으로 정확한 소비량 집계
  - 셋째, 부위별 수입량과 재고량 집계
  - 넷째, 육류 소비처별 육류 소비 패턴 조사
- 상기 네 가지 조사가 충실이 수행되지 않는 한 완전한 중, 장기 정책 수립은 불가능하다.

**6. 구제역과 국내 양돈**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부에 의존하는 양돈보다 자기 스스로 살

〈참고〉 E.C 보조금 변화

(단위: EUR/KG)

해당품목	2000.3.13 이전	3.14 ~	4.11 ~	5.17 ~
전지,햄,전각,어깨등심	0.4	0.35	0.25	0.15
미박 삼겹	0.25	0.22	0.15	0.09

- 2000년 11월까지 보조금 전액 없어질 것으로 전망.

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향후 예상되는 돈가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이 간절히 요구된다. **양돈**

